

## 기독교세계관에 기초한 ‘포스트모던 인간관’ 연구

유 경 상(백석대학교 기독교철학 박사과정)

###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철학의 궁극적 주제 중 하나인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이해와 기독교세계관적 이해를 각각 정리하고,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적 인간관을 기독교세계관으로 평가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분석도구로 사용하였는데,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목적)’,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대안)’라는 세 가지 질문에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세계관이 각각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를 정리하였다. 이를 토대로 두 인간관을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포스트모던 인간관과 기독교적 인간관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규명할 수 있었다. 또한 포스트모던 인간관의 한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해 기독교 인간관이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지를 정리할 수 있었다.

비인간화 내지 인간 가치의 상실로 인해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전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간관이다. 이런 점에서 비인간화로 대표되는 모더니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반이 되는 인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한 점에서 신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본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포스트모던 인간, 기독교적 인간관, 하나님의 형상, 창조·타락·구속, 인본주의

## I. 서론

어느 시대나 인류는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탐구를 지속해 왔다. 고대 희랍의 소크라테스(Socrates, 470 ~ c. 399 BC)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자기자각(自己自覺)을 철학적 탐구로 삼았다. 프로타고라스(Protagoras, c. 488 ~ 415 BC)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라 하며 만물의 척도는 자연이라고 보는 것과는 반대로 인간 중심주의를 표방하기도 했다. 중세의 어거스틴(Augustinus, 354 ~ 430)은 신을 비롯해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을 평생에 걸쳐 알고 싶은 두 가지라고 역설했다. 계몽주의 시대의 칸트(I. Kant, 1724 ~ 1804)는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인식론), ‘나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윤리학),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신학)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졌고, 그 세 가지 물음들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으로 귀착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칸트 역시 철학의 궁극적 주제를 인간에 대한 탐구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가톨릭대학교 인간학교육원 편저, 1997 : iv).

오늘날 포스트모던 시대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유래 없이 더욱 중요한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이든, 무엇을 하든 그것을 지지하는 절대적 기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과학 기술로 말미암아 사회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점점 연약하고 소외받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음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지상 유토피아 건설을 꿈꾸며 행해졌던 무분별한 개발은 엄청난 환경 파괴로 돌아왔으며 그 결과 인류 전체의 존폐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이 시대야말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조명해 보고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해야 할 시기이다. 비인간화 내지 인간 가치의 상실로 인해 공허한 마음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멋진 차에, 대저택에, 쇼핑에, 동호회에, 심지어 마약과 같은 일탈에 빠져 보지만 이는 임시적 방편이 될 뿐 인간이 직면한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적 인간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날의 인간관, 즉 포스트모던 인간관을 조명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Sproul, 1983 : 19). 왜냐하면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의 존엄성의 기반과 인생의 참된 의미에 대한 성경적 기반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 앞에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에 자신의 인간관을 형성해 가는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또한 인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기독교적 인간관을 살펴 볼 것이다.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분석도구로 사용함으로써 두 인간관을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창조·타락·구속의 틀은 경쟁적 세계관을 분석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을 정립하는 도구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earcey 2006 : 245-246). 두 인간관의 분석을 위해 창조·타락·구속의 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인간(의미와 목적)이란 무엇인가?
- 둘째, 인간이 직면한 문제(원인)는 무엇인가?
- 셋째,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따라 인간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적 관점을 각각 정리한 후 마지막으로 포스트모던 인간관을 기독교세계관적으로 평가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포스트모던 인간관의 한계가 무엇인지, 긍정적인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적 인간관이 어떻게 그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살펴 볼 것이다.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II. 인간에 대한 포스트모던적 이해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은 초기에는 주로 건축과 문학 등 예술 분야와 철학에서 논의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개인의 삶이나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이다. 그러나 점점 현대 사회의 모든 국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으며 따라서 그 내용규정도 다양하다(신국원, 1999 : 12-18). 일반적으로 기존의 전통적이고 획일적인 사고방식인 합리주의가 붕괴되고 다원적이고 상대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으로 전환된 것을 포스트모더니즘이라 할 수 있다.<sup>1)</sup>

포스트모더니즘을 규정하기 위해 학자들은 ‘후기’(後期) 근대(modernism), ‘탈’(脫) 근대, 신(薪) 근대, 대안(alternative) 근대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전광식, 1994 : 19).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모더니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냐를 살펴 볼 때 더욱 분명해 진다. 김영한은 “포스트모더니즘이란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교차하는 개념”(김영한, 1992 : 81-82)이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의 특성을 가진 동시에 그것과 대립된 특성을 지닌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극복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모더니즘이 가진 인간중심주의를 지속적으

---

1) 전광식(전광식, 1994 : 29-38)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이러한 이중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리오타르(Lyotard)와 데리다(Derrida) 등이 주장한 해체주의(deconstruction)이다. 여기서 해체란 파괴의 의미가 아니라 전통적 형이상학과 같은 텍스트를 철저히 비판하고 상대화함으로써 텍스트 안에 감추어진 여러 가지 구조들과 상호작용을 드러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탈구조와 탈중심을 지향한다. 둘째, 모더니즘의 상징인 이성과 논리의 절대성에 반대하여 비합리주의(非合理主義) 내지 탈합리주의(Irrationalism)적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욕망, 충동, 감성을 중요시 여긴다. 셋째, 일의성(一義性)보다는 다의성(多義性), 동질성보다는 이질성, 단수성보다는 복수성에 가치를 둔다. 이를 통해 “경계를 넘어선 시야, 가능한 변경, 다른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게 되었다. 넷째, 탈인간중심주의 내지 주체의 상실을 나타낸다. 인간은 더 이상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자연의 힘과 우주의 질서 속에 함몰되어 간다. 다섯째, 탈정치화와 탈역사화를 표방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역사와 정치 활동을 비롯한 모든 담론을 욕망을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로 추구해 가려는 시도에서 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김영한, 1994 : 76).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인간관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 동시에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추구했던 인간중심주의를 지속한다. 지금부터 포스트모더니즘 인간관을 이해하기 위해 위에서 제시한 세계관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질문을 토대로 포스트모더니즘이 이해하고 제시하는 인간의 의미,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 그리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욕망적 자아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실재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더니즘은 외부 실재와 인식자의 사고 사이에 본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전제한다.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이 곧 ‘자연의 거울’로 기능한다고 믿는다. 즉 인간의 지식은 객관적으로 ‘주어진’(given) 실재와 인식 판단 사이에 직접적인 상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서 비롯된다(Walsh & Middleton, 2007 : 62-66).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러한 모더니즘의 실재관을 비판한다. 그들은 이성 뿐 아니라 하나님, 역사, 과학 등과 같은 과거의 지적 체계들을 모두 거부한다. 그 결과 기존의 모든 지식의 틀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객관적, 절대적 진리를 포기할 것을 주장한다. 예를 들어 데리다(Jacques Derrida)는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단지 사회적 삶을 인도하는 언어적, 개념적 구성물 또는 이야기(narratives)일 뿐이라고 생각했다(Walsh & Middleton, 2007 : 66). 그는 해체라는 용어를 고안하면서 모더니즘의 기반이 되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내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독해하고자 했던 방식은 이러한 유산을 [내 것으로] 습득하고(commanding) 반복하고 보존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떻게 그들의 사유가 작동하고 있는지 또는 작동하지 않는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언어 자료(corpus) 내에서 긴장, 모순, 이질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분석이다. (중략) 이러한 ‘자기 해체 (self-deconstruction)’, ‘자동 해체(auto-deconstruction)’의 법칙은 무엇인가? 해체는 당신이 외부로부터 온 무엇인가에 적용하는 방법 또는 도구가 아니다. (중략) 해체는 발생하는, 그것도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 무엇인가다-예를 들면 플라톤의 텍스트들 내부에서는 하나의 해체가 작동하고 있다(Derrida, 1997A : 9-10).

이처럼 실재가 하나의 사회적 구성물이며, 절대적 진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더니즘이 표방했던 ‘자율적 인간’(Homo autonomus)을 지지하는 기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이러한 맥락에서 “사고(思考)의 고고학에서 보면 인간(The Man)은 최근의 산물이며 그리고 아마도 인간은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는 자일 것이다.”고 평가했다(Foucault, 1994 : 387). 그 역시 진리를 유일무이한 진리(The Truth)가 아니라 시대별로 구성된 복수의 진리(truths)라고 이해했고 그 진리관에 기초하여 인간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이다.

모더니즘 실재관에 기초한 자율적 인간은 우리를 구속하고 억제하는 모든 금지 조항들을 벗어나 스스로 선택하며, 스스로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대로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더 이상 창조주의 노예도 아니며 오히려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음을 선포했다. 한마디로 자율적 인간은 독립적이며, 주체적이며, 자기중심적 성향의 자아였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을 자율적 존재가 아닌 하나의 언어적 구성물로 평가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객관적 의미나 절대적 진리와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만 언어가 인간과 사회를 구성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이런 생각 때문에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자율적인 것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오히려 언어였다(Walsh & Middleton, 2007 : 101). 그래서 하이데거와 데리다는 언어를 사이버 중개자(quasi agent), 생각하는 존재(brooding presence),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 여겼다. 결국 언어는 ‘신과 유사한 것’으로까지 여겨졌다(Rorty, 1991 : 101-102).

이와 같이 실재관과 인간관의 변화 후 세계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모더니즘의 자율적 자아는 세계 중심과 척도로서 이해되었지만,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인

간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으며 심지어 그 중심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탈중심적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케네스 거젠(Kenneth J. Gergen)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포스트모던 조건 하의 사람들은 지속적인 구성과 재구성 상태 속에서 존재한다. 모든 것을 협상할 수 있는 세계다. 자아의 각각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반복적 질문, 아이러니, 극단적으로 유희적인 실험이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더 이상 중심을 유지할 수 없다(Gergen, 1991 : 105-106).

하지만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러한 탈중심적 자아의 모습에 대해 슬퍼하거나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날그날의 (구성된) 진리들과 함께 즐기면 된다. 익살맞게 생긴 모자를 흔들어 보거나 한번 모자를 써보면 된다. 심각한 생각들은 카니발 입구에 그냥 두고 들어와라(Walsh & Middleton, 2007 : 107).” 어차피 모더니즘의 자율적 인간과 같은 본질적인 자아는 원래부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탈중심적 자아는 인간에 대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자연스러운 이해일 것이다.

이러한 탈중심적 자아가 끊임없이 자기를 재구성해 가는 데 필요한 재료는 이미지이다. 이 이미지 재료는 단지 모방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쉽게 버릴 수도 있는 것들이다. 포스트모던 자아에게 이러한 이미지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오늘날의 전자 매체이다. 특히 TV 그중에서도 MTV는 이미지 생산의 중대한 역할을 한다. MTV는 플롯을 중심으로 하는 내러티브 형식이 아니다. 그것은 매혹적인 사운드와 더불어 수많은 매력적인 이미지의 나열을 거의 일방적으로 쏟아낸다. 포스트모던 자아는 MTV를 비롯한 전자 매체를 통해 실체가 아닌 자신을 구성할 스타일을 제공받고 있는 것이다(Schultze, 1991 : 192).

이러한 과정 속에서 탈중심적 자아는 이성과 논리가 아닌 감성과 본능에 의해 이끌려지는 욕망적 자아가 된다(전광식, 1994 : 34). 데리다는 『현대 대륙사상가들과의 대화』에서 해체를 통한 탈중심적 자아가 어떻게 욕망을 드러내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텍스트를 해체한다는 것은 주관이 어떻게 욕망으로, 즉 무한히 연기된 현전과 실행에 대한 탐구로서 기능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는 언어에 대한 욕망에, 즉 자신에게 있지 않으면서 자신과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갈망에 자신을 열어놓지 않고서는 해독할 수 없다. 텍스트에 대한 사랑 없이는 어떤 해독도 불가능하다. 모든 해독에는 독자와 텍스트가 삶과 삶을 서로 맞대고 있으며, 또한 독자의 욕망을 텍스트의 욕망으로 구체화시킨다. 해체가 종종 비난받는 메마른 주지주의의 반대편에 쾌락이 있다(리처드 커니, 2009 : 169에서 재인용).

요컨대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답은 모더니즘의 실재관과 그것이 표방하는 자율적 인간에 대한 거부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 자아는 탈중심적 자아이며 동시에 욕망적 자아라는 것이다. 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포스트모던 자아를 대변한다.

## 2. 억압된 자아

‘인간이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답변은 한마디로 ‘억압된 자아’의 신음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실재와 인간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성과 동질성만을 강조하고 차이, 이질성, 타자성, 그리고 개방성 등을 감추게 될 때 인간의 문제는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보편성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고집한 채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때 결국 억압적이고 폭력적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그 억압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메타내러티브(meta narrative)이다(Walsh & Middleton, 2007 : 145-147). 메타내러티브는 모더니즘의 이성 절대주의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상 체계가 그에 속한다. 이에 대해 데리다는 “철학의 모든 전통은 그 의미나 그 근본에서부터 압제와 손을 잡고 있다”(Walsh & Middleton, 2007 : 68)라고 말한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는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구성된 것이다. 이러한 실재관을 토대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모더니즘 사상과 문화는 모던 시대의 지배 내러티브이며 그 당시 권력을 가진 기득권층의 이익을 정당화해 주



는 것으로 보았다. 지배권력 구조의 정당화는 곧 지배 내러티브로부터 소외된 이야기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배제시키는 일에서 시작된다. 리오타르(J. F. Lyotard)는 이러한 모더니즘을 “인류가 행할 수 있는 최악의 테러”(Walsh & Middleton, 2007 : 70)라고 평가한다. 포스트모더니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인간, 특히 욕망적 자아에 대한 억압이요 폭력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미셸 푸코만큼 억압된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없다. 그는 광인의 억압에 대해 『광기의 역사』를, 범죄자들의 억압에 대해 『감시와 처벌』을, 동성애를 포함한 성적으로 억압된 자들에 대해 『성의 역사』를 저술하면서, 그들의 침묵을 깨뜨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억압을 폭로하는데 힘썼다. 예를 들어 그는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것이 전복되기를 원했다. 근대적 휴머니즘의 인간을 탄생시킨 권력의 한 형태인 규율은 가시적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은폐하면서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었음을 지적한다. 다시 말해 권력은 규율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개인을 완벽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푸코에 의하면 모던적 자아는 육체적으로 잔인하게 처벌하는 방법보다 감시하는 방법을 통해 억압받게 된 것이다(푸코, 2003 : 13). 이런 점에서 모던적 자아는 자율적 자아인 동시에 억압된 자아임을 알 수 있다. 그는 마지막 각주에서 이 책이 현대사회의 규격화의 권력과 지식의 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의 역사적 배경이 될 것임을 말하면서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

복잡한 권력 관계의 결과와 도구, 다양한 ‘감옥’ 장치들에 의해 예측화된 신체와 힘, 그러한 전략의 구성요소인 담론의 대상들 사이에서, 곧 중심적이고 중앙권력 지향적인 사람들 틈에서, 으르렁거리며 싸우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푸코, 2003 : 465).

진 에드워드 비스(Gene Edward Veith, Jr)는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사상가들의 억압에 대한 관점은 니체와 마르크스와 프로이드, 세 사람의 생각을 종합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평가한다. 니체는 인간의 삶과 문화를 권력에 대한 내적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였다. 마르크스는 문화를 계급투쟁과 경제적 착취라는 각도에

서, 프로이드는 문화를 성적 억압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서로의 이론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문화를 억압의 관점에서 보았다는 것이다. 언어로 구성된 사회와 문화, 그 배후에는 지배 내러티브를 가진 권력자의 음흉한 음모가 숨겨져 있으며, 사람들을 교묘하게 억압하고 있다. 사람들은 지배 권력을 정당화하는 ‘언어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셈이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 이론에 따라 페미니스트들은 문화를 남성과 여성, 두 성(性)사이의 투쟁과 여성의 억압으로 해석하며, 동성애자들은 자기 스스로를 성적 소수자로 부르며, 동성연애자들의 탄압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Veith, 1999 : 62-63).

요컨대 포스트모더니즘이 보는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메타내러티브에 의해 고통당하고 있는 억압된 자아의 현실이다. 자율적 자아로 대표되는 모던적 자아의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메타내러티브를 토대로 자신의 자율성을 추구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결과로 억압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볼 때 오늘날의 인간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 3. 구성적 자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포스트모던 인간관의 핵심은 탈중심적 자아 내지 욕망적 자아이다. 그 자아는 이성이 아닌 욕망에 의해 이끌려진다. 그런데 여전히 메타내러티브를 고수하고 인간의 자율성과 자기중심성을 추구한다면 결국 욕망적인 자아를 무시하는 것이며 억압하는 것이다. 이처럼 메타내러티브의 폭력으로 욕망적 자아는 억압된 자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안은 분명해 진다. 그것은 억압된 자아가 욕망적 자아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이며, 이것은 곧 메타내러티브의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했던 첫 번째 작업은 문화의 표면 아래에 있는 음모와 억압을 지적하고 폭로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언어적 구성물인 문

화는 환상으로서만 존재하는 진리를 전하도록 고안된 것으로 보았고, 실제로 그것은 지배 권력의 음모를 가리는 덮개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스트모더니스트들, 특히 해체주의자들은 문화 아래에 있는 지배 권력을 밝히기 위해 그 덮개를 벗기려 하였다.

의심의 해석학의 예를 들어 보자면, 미국의 독립 선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all men)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창조주는 그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확고한 권리를 부여했다.”라는 본문은 표면적으로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위 텍스트를 볼 때 결코 평등하지 않다고 본다. 모든 사람을 “all men”이라고 쓴 것은 그 단어가 여성(woman)을 배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선언문 작성자인 토머스 제퍼슨은 노예를 거느린 사람이었다. 따라서 해체주의자들이 보기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표면적으로는 평등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위 텍스트에서 보여 지는 것은 여성과 흑인노예들에 대한 불평등이다. 여기서 음모는 드러난다. 그것은 바로 지배 권력층으로서의 부유한 백인 남자들의 음모이며 이를 통해 자신들의 권력과 유익을 정당화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들의 기반을 하나님에게 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 메타내러티브이다(Veith, 1999 : 62-63).

이러한 폭로는 억압된 자아에게 있어 해방의 시작이었다. 억압된 자아가 온전한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본연의 모습, 즉 욕망적 자아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폭로를 넘어 더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메타내러티브의 울타리를 벗어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인 억압된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은 욕망적 자아라는 포스트모던 자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구성적 자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메타내러티브로 여겼던 것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야기들은 역시 단지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것뿐이다. 우리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초월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은 없다. 단지 구성적 자아는 자신들의 스타일과 행동방침을 정당화하는 것은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신들의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자, 페미니스트들, 흑인들은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하며 그들의 이야기로 그들을 억압했던 메타내러티브를 철저히 해체하며 공격한다(Veith, 1999 : 63-64).

따라서 포스트모던 인간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동일한 방향을 향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원화되는 삶을 살도록 종용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이질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한 마디로 이 시대의 미덕(美德)은 관용(tolerance)인 것이다(Veith, 1999 : 74). 심지어 일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메타내러티브가 아닌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내러티브까지 강력하게 반대했다. 그들은 메타내러티브이든 개별적 내러티브이든 간에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플롯 역시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하는 것에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그들은 아포리즘(aphorism)을 예로 든다. 이것은 니체가 선호한 것인데, “아포리즘이란 전형적으로 긴밀한 연관성이 부족한, 때로는 무작위로 나열된, 간단히 구색을 맞춘 명언을 모은 것이다. 아포리즘은 단일하고 전체적인 구조가 없다(Walsh & Middleton, 2007 : 153).” 이처럼 그들은 메타내러티브처럼 개별적 내러티브에서도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의 행동까지 관용으로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한다.

포스트모던 자아는 점점 모든 체제와 규범에서 벗어나 감성과 본능의 세계로 일탈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이것은 다만 인간을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푸코가 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억압의 가설이 아닌 증폭의 가설로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어쨌든 사회가 경제적 이유로 섹스에 대해 억압적 권력을 행사한다는 가설은 <중략> 매우 옹색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축출이나 배척의 부정적 메커니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담론, 앎, 쾌락, 권력이 미묘하게 얽힌 조직망의 점화이고, 야생의 성을 어떤 어둡고 접근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집요하게 내모는 것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라 반대로 성을 사물과 육체의 표면에 터뜨리는, 성을 자극하는, 성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성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성을 현실에 정착시키고 진실을 말하라고 성에 대해 명령하는 과정이다. 즉 담론의 다양성, 권력의 집요함, 쾌락에 대한 앎의 상호 작

용에 의해 가시적이게 되는 성적인 것의 온전한 반짝임이다(푸코, 2007 : 94-95).

정리해 보면 구성적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일탈은 포스트모던 자아에게는 구원 과도 같은 것이다. 구성적 자아는 “인상적인 정체성들을 대충 진열해 놓을 수 있는 무한한 융통성을 지닌”(Walsh & Middleton, 2007 : 105) 욕망적 자아의 모습에 충실할 뿐이다. 오늘날의 성(性)과 록음악, 가상현실, 뉴에이지 그리고 대중문화는 욕망적 자아가 현실로부터 일탈하도록 하는 ‘구원의 방주’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신국원, 1999 : 246).

지금까지 포스트모던 인간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것은 모더니즘이 추구하는 자율적인 인간관을 부정하고 오히려 그 자율적 자아가 인간이 직면한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과 불연속적 면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장선위에 놓여 있다. 비록 포스트모더니즘이 모더니즘을 비판을 하고 나온 것이지만, 그 대안인 구성적 자아 역시 인간 스스로의 해결책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아래에는 동일한 인간중심주의적 인본주의가 흐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이 그러했듯이 신본주의인 기독교에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Veith, 1999 : 8).

### III. 인간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이해

기독교적 인간관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라는 단어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을 기록하고 있다(창세기 1 : 26). 하나님의 형상은 간단히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존재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성적, 윤리적, 사회적, 종교적 존재, 즉 전인적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영이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Milne, 1998 :

119-120).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왜곡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기독교적 인간관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 1.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주 전체를 만드신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창세기 1 : 1). 하나님은 창조(create)하셨을 뿐만 아니라 만드신 피조물을 유지(sustain)해 주신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생각과 삶을 훤히 알고 계시며, 피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시고, 생각하시고, 대화하시고, 행동하시며,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시다(Milne, 1998 : 67-72).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분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다. 이것은 특히 우리 역시 인격체임을 의미한다.<sup>2)</sup> 이것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곧 관계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인간이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창조 세계와 관계를 맺는 존재라는 것이다. 이 관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볼 때,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Macaulay & Barrs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곧 우리가 인격체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인격의 모든 기능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 안에도 실재하였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적이며 심미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랑했고, 논리적으로 생각했다. 그들도 우리와 다를 바 없이 윤리적이었고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다(Macaulay & Barrs, 1992 : 16-17).”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인격적인 관계를 토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며 즐기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단지 영적인 부분에서만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전인적(영, 육체, 정신, 감정, 의지)으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교회와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1문항은 “사람의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인간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 상호간에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인간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가족, 친척, 이웃, 민족, 국가라는 울타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그 관계를 떠나 고립 속에 있을 때 깊은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 상호 간에 인격적 관계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세계와도 관계를 맺게 하셨다.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인간은 성경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성경구절). 또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관리하고 돌보는 청지기로 부르셨다(창세기 1:28; 창 2:15). 청지기란 하나님 만드신 세상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하고, 또한 그것을 향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인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는 인간이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청지기로서 세상을 섬기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명을 다 함으로써 세상 속에 영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창조세계와도 관계를 맺게 하셨다.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자신을 계시하신다. 따라서 인간은 성경뿐만 아니라 창조세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롬 1 : 20).



## 2.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불순종(창세기 3 : 6)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은 인간에게 점점 하나님과 닮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난다. 인간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은 바로 인간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막 7 : 21-23)이며 이것이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게 되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까지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하였다. 하나님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사라졌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과 섬김이 아닌 미움과 불신이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이 다스려야 할 피조세계에는 가시와 엉겅퀴만이 가득해졌으며, 창지기의 역할을 망각하고 직무유기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이와 더불어 인간 자신의 마음은 죄책감과 소외감으로 가득 찼으며 마음, 정신, 감정, 그리고 의지는 불완전해졌다. 한마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죄에서 비롯되며,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 고통과 절망 속의 현실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인격)은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변함없이 인격체라는 것이다. 그래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가치는 변함없이 고귀한 것이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에게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힘이 없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능력이 없다(Macaulay & Barrs, 1992 : 20). 이러한 점에서 인간은 “자력갱생 불능의 선고를 받은 존재”(양승훈, 2004 : 125)이다. 이러한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하신 것은 다름 아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세상을 위해 사랑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를 통해 절망 가운데 있던 인간에게 외부로부터 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 3.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다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음(good news)이다. 그 복음은 인간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은 이러한 복음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말한다. 따라서 인간이 직면한 문제,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성자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으셨고,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통해 영혼구원과 만물회복이라는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삶을 사셨다.

타락한 인간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갈 3 : 27-28).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이다. 성경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옛 사람(고개 돌린 하나님의 형상)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골 3 : 9-10)가 되라고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길을 준비하는 초청이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창조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본분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재임용된 삶을 다시 살게 되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기독교적 인간관의 특징은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인 동시에 책임적인 존재”(Holmes, 1991 : 155-182)라는 것이다. 관계적 존재로서 인간은

무엇보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의 관계에 의존한다. 또한 자신을 포함한 인간들과 창조세계와도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상호관계는 동시에 책임을 동반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 세계를 섬기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관계와 책임은 모두 죄 혹은 은혜의 영향을 받는다. 성경은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묘사한다(약 1:8). 인간의 죄는 관계들을 깨뜨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관계들을 회복시키며 우리로 하여금 총체적 삶 가운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게 하며,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자로 살아가도록 이끈다(전광식, 1998: 54).

#### Ⅳ. 포스트모던 인간관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평가

지금까지 인간관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세계관적 질문들을 토대로 포스트모던 인간관을 분석하고, 기독교적 인간관을 정리해 보았다. 그것을 간략히 비교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포스트모던 인간관 vs 기독교적 인간관

세계관적 질문들	포스트모던 인간관	기독교적 인간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성적, 자율적 자아를 부정하는) 욕망적 자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이 직면한 문제(원인)는 무엇인가?	(지배 권력에 의해) 억압된 자아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욕망적 자아로의 회복을 위한) 구성적 자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위와 같이 인간에 대한 동일한 세계관적 질문들에 대해 포스트모더니즘과 기독교세계관은 서로 전혀 다른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이제 포스트모던 인간관을 기독교세계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을 구분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기독교세계관과 대립되거나 적대적인 사상을 의미하며, 포스트모던은 이 시대의 기독교가 추구하고 도전받아야 할 방향이다.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자세를 그리고 포스트모던에 대해서는 희망적인 자세를 취하고자 한다(Veith, 1999 : 8-9). 이러한 전제하에 포스트모던 인간관을 세 가지 세계관적 질문에 따라 기독교세계관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 1. 인간이란 무엇인가?

위에서 본 것처럼 포스트모던 인간관과 기독교적 인간관의 결정적인 차이는 실재관의 차이였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기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 존재의 의미를 찾았다. 반면에 포스트모더니즘은 실재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사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보고 인간 역시 자율적이거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언어와 사회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실재관은 인간관을 형성하는 것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관, 종교관, 문화관 등에도 영향을 주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형성하는 기반이 된다.

먼저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을 관계적 존재라고 본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탈중심적 자아와 대립된다. 탈중심적 자아란 하이데거의 말처럼 “인간은 더 이상 중심에 있지 않다.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다(Veith, 1999 : 90).” 이런 점에서 탈중심적 자아는 다른 모든 관계들로부터 고립되고 단절될 수밖에 없다. 또한 탈중심적 자아란 거대담론을 부정하고 객관적 실재를 부정하는 실재관에 기반을 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 그 자체가 절대적이며 하나의 거대담론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자기모순을 이

미 내포하고 있는 실재관의 기초 위에 세워진 인간관이기에 이미 그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탈중심적 자아의 또 다른 면인 욕망적 자아를 볼 때도 그것은 기독교적 인간관과 대립된다. 욕망적 자아는 인간이 이성이 아닌 감성과 본능에 의해 이끌려서 존재함을 의미한다.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욕망과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욕망적 자아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주장하지만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욕망과 선택을 비판할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Veith, 1999 : 74).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 시대의 관용이다. 그것은 이 시대의 최고의 덕목이 되고 있다.<sup>3)</sup> 예를 들어 욕망적 자아에게 믿고 따라야 할 종교적 가르침이나 종교적 의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다만 욕망적 자아에게 종교는 자신이 좋아하는가, 좋아하지 않는가의 관점에서만 의미가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어떤 종교를 믿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어떤 종교라도 심지어 UFO종교나 사교(邪教)까지도 상관없다.

도덕적인 면에서도 욕망적 자아는 전통적 윤리 기준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판받는 것을 거부한다. 다만 '내가 원해서 선택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나에게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러한 생각은 건전한 성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성 혁명을 통한 자유로운 성 관계(free sex), 동성연애자들의 증가, 인터넷을 장악하고 있는 음란물 등으로 인해 욕망은 채워졌을지 몰라도 인간은 점점 비인간화되어 가고 있다. 성은 결혼과 분리되었고, 가정은 해체되어 가고 있다. 에이즈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진 에드워드 비스는 에이즈를 "포스트모던 시대의 질병"으로까지 부른다(Veith, 1999 : 8-9).

이처럼 욕망적 자아로서의 포스트모던 인간관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욕망에 집착하여 살도록 이끈다. 이러한 인간관을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다른 사

3) McDowell & Hostetler는 우리가 교회 밖에서 교사, 뉴스 앵커, 정부 관계자, 배우 등에게 듣는 80%의 관용의 의미는 "모든 가치, 신념, 라이프스타일, 진리는 동일한 것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것을 전통적 관용과 구분해서 'new tolerance'라고 부른다(McDowell & Hostetler, 1998 : 18-20).

람은 상관없이 자신의 욕망만을 채움으로써 이기심이 가득하고, 음란성과 도덕적 방종으로 가득한 삶을 살 게 된다. 또한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회를 이루게 된다면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은 대립과 갈등을 낳고 폭력이 난무한 혼돈의 상태가 될 것이다. 지식 사회학자 피터 버거(Peter Berger)는 그 혼돈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위험은 인간이 무질서, 무분별, 광기의 세계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악몽이다. 존재와 정체성은 공포의 무의미한 형태로 변했다. 아노미적 공포로 인해 ‘정신착란’이 생기지 않는다면 엄밀한 의미에서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아노미는 차라리 죽음을 추구할 정도로 인간이 견뎌내기 힘든 고통이다(Berger, 1967 : 4).

그러므로 기독교적 인간관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욕망적 자아를 반대한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은 포스트모던 인간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생기는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에야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반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다. 또한 인간은 전인적 존재로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을 욕망적, 감정적 존재로만 정의하는 포스트모던 인간관과 일치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모던 자아가 근대적 자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모던적 자아가 자신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신의 죽음을 선포하고 그 자리에 이성적 존재인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것은 목도했다. 하지만 이성과 과학이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우상이 되었고 근대적 자아를 억압하고 부자유함 속에 살도록 속박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러한 역사적 현실 속에서 포스트모던 자아는 인간의 죽음마저 선포한 것이다. 한마디로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의 생각의 여정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마저 그 존재의 기반을 상실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신국원, 1999 : 246-247). 기독교적 관점도 하나님

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하고 말 것이며,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

또한 인간의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실재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며 단지 사회적 삶을 인도하는 언어적, 개념적 구성물 또는 이야기(narratives)일 뿐이라는 주장은 모더니즘의 기반을 흔들었으며 더 나아가 포스트모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데리다는 모더니즘의 실재관을 반대하면서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데리다의 이러한 생각은 먼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었다. 텍스트 바깥에 아무 것도 없다면 모든 것은 해석의 대상이며 그 해석은 어떤 전제, 즉 세계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세계가 해석되는 것이라면 자연주의자이든 무신론자이든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모두 자신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오랜 전부터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도예베르트, 프란시스 쉐퍼가 주장한 종교적 동인, 즉 세계관이 세계 이해를 지배한다는 주장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스미스, 2009 : 84-85).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특히 공적인 영역에서조차 그렇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어색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이라는 텍스트 바깥에는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인이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삶의 모든 영역을 해석하고 살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한 것이다.

## 2.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인가?

포스트모더니즘은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메타내러티브의 폭력에 의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그래서 억압되어 있는 자아에게서 찾았다. 모더니즘의 이성 절대주의를 포함해 절대적 진리를 주장하는 모든 사상체계가 메타내러티브에

속한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러한 문제의 진단은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다른 세계관은 모두 상대화하고 다른 모든 메타내러티브의 허구를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그 기준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결국 그것은 다른 모든 메타내러티브를 배제시키고, 오직 자신을 가장 크고도 유일한 메타내러티브로 만든다(Walsh & Middleton, 2007 : 160). 한마디로 상대주의를 절대화하는 자기모순에 빠진다.

그러한 모순은 그들이 적나라하게 비판했던 메타내러티브의 폭력성이 다른 아닌 그들에게도 나타남을 확인하게 될 때 더욱 분명해 진다. 예를 들어 공산주의라는 메타내러티브로 묶어진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을 때 그 연방 안의 많은 국가들과 종족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내러티브의 충돌로 인해 엄청난 갈등과 폭력을 겪고 있다(Walsh & Middleton, 2007 : 157). 부족전쟁으로 인한 르완다의 대학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의 적대적 관계 등 이러한 끔찍한 폭력이 난무하는 일들이 메타내러티브가 아닌 지역적 내러티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들 역시 그들의 내러티브로 자신들의 폭력을 정당화한다. 진 에드워드 비스는 이에 대해 “공통된 철학과 언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할 수도 없고 절충안을 산출할 수도 없다. 단지 상대방에 대해 힘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Veith, 1999 : 185)라고 평가하였다.

이와 같이 내러티브는 메타내러티브만큼 절대적이며,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메타내러티브가 그랬던 것처럼 다른 내러티브를 가진 사람들을 자신의 내러티브로 억압할 수 있다. 메타내러티브에게 가했던 포스트모더니즘의 신랄한 비판은 결국 자기도 벗어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빠졌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자아는 자신들에게 내려지는 비판들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 그들의 내러티브를 수행하는 것은 억압이 아니라 관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다른 내러티브의 부당한 양태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비판을 가한다. 이에 대해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당신이 올바름과 그릇됨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으레 이 사람이 이후 에 그 믿음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당신에게 한 약속을 깨뜨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한 약속을 깨뜨리려고 하면 ‘정당하지 않



다고’ 불평할 것이다(Veith, 1999 : 74).

한편 메타내러티브는 모두 포스트모더니즘의 표적이 되는가라는 질문에 포스트모던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리오타르의 입장은 다르다. 그의 핵심은 ‘메타내러티브냐 아니냐’라기 보다 내러티브의 본질에 있다. 다시 말해 그에게 메타내러티브는 거대한 이야기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 입증되거나 정당화될 수 있는 모더니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탈근대적인 점이라는 뜻에서 근대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나는 근대적이란 용어를, 정신의 변증법(헤겔), 의미의 해석학(슐라이어마허), 합리성의 해방(칸트) 혹은 노동주체의 해방(마르크스), 혹은 부의 창조(아담 스미스) 같은 거대 서사에 호소하는 메타담론(metadiscourse)으로 자신을 정당화하는 과학을 지칭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스미스, 2009 : 101에서 재인용).

따라서 리오타르에 의하면 메타내러티브라고 해서 폭력과 억압의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학과 서사라는 갈등 속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표적은 보편적 이성과 과학적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모던적 진리관에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기독교 역시 그들이 해체해야 할 메타내러티브 중 하나로 여긴다. 예를 들어 프로이트는 기독교를 성을 억압하는 체제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을 종속시키는 수단으로, 마르크스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천국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착취를 정당화 하는 책략으로 보았다. 그러나 성, 여성, 구원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은 기독교적 관점과 완전히 배치된다. 억압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보는 그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리오타르의 메타내러티브에 대한 이해는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권력은 다 억압인가?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고문(16, 17세기), 처벌(18세기), 훈육(19, 20세기)으로 이어지는 형벌에 대한 역사적 발달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이러한 서술을 통해 사회 기관과 사회적 관계는 반드시 권력을 기반으로 세워짐을 보여주려고 했다. 지

배와 통제에 대한 그의 비판이 기독교적 인간관으로 볼 때 만약 하나님의 형상의 가치를 하락하거나 상실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기독교인 역시 동일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훈육을 통해 인간을 경제적 동물로, 생산 기계로, 성적인 동물로 축소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억압에 대해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훈육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억압으로 보기는 힘들다. 다시 말해 지배와 통제 자체를 억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통제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억압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의 말처럼 “우리는 텔로스(telos), 즉 목적을 따져서 좋은 훈육과 (억압적인) 나쁜 훈육을 구별할 수 있다(2009 : 153).”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직면한 문제의 상태를 억압된 자아가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불순종, 즉 죄 때문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우상의 노예로 전락했고, 서로에게 다가갈수록 상처만 남기는 존재가 되었으며, 가시와 엉겅퀴를 비롯한 오염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현실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억압된 자아가 겪고 있는 동일한 현실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독교적 인간관은 그 원인을 메타내러티브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죄로 본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은 이러한 억압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간과했다. 또한 포스트모던 자아가 인간이 처한 현실문제의 책임을 메타내러티브에 돌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비판받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변명과 핑계는 죄에 대한 인간의 가장 전형적인 반응이다(Clements, 1997 : 47-48).

하지만 그들의 그러한 비판들 중에는 겉히 받아들이기 수밖엔 없는 역사적 사실도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십자군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메타내러티브의 폭력과 같은 만행을 저지른 역사적 사건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전쟁과 침략의 정당성을 그리스도에게서 찾았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동성애자의 인격마저 무시하고 기독교인 자신의 윤리적 우월성을 내세우는 것은 일종의 폭력이다. 사람에 대한 온유함과 배려 없이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독교를 메타내러티브의 폭력으로 바라보게 하여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는다.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하는 것은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혹 억압 받은 자들이 있다면 우리의 무례함에 대해 하나님과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독단성과 과격성에서 벗어나 타인을 인정하며 정중한 태도를 가져야 한다(Mouw, 2004 : 35). 또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애통해 하며, 그들에 대한 정의가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정리해 보면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은 사회와 문화의 문제를 억압으로 보았다. 그러한 억압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포스트모던 사상가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억압의 밑바닥에 인간의 죄가 자리 잡고 있음을 드러내야 한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억압받고 있는 죄인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며, 그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사명일 것이다.

### 3.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오만으로 가득하여 폭군처럼 군림한 근대적 자아의 횡포에서 벗어나 본연의 모습인 욕망적 자아로 돌아가기 위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대안은 욕망이 억압되지 않는 방식으로 구성 및 재구성이 가능한 자아관을 형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구성적 자아는 무한한 융통성을 지닌 욕망적 자아이다. 그래서 구성적 자아는 모든 체제와 규범에서 벗어나 감성과 본능의 세계로 일탈하려는 욕구 속으로 점점 빠져

들게 된다. 이러한 구성적 자아관을 세우는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TV와 인터넷이 대표하는 대중 매체일 것이다. 탈중심적 자아가 자신을 재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이미지 자료를 대중 매체가 생산 공급해 준다. 포스트모던 자아는 만족할 줄 모르는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이미지와 스타일의 연속물들로 자신을 재구성해 가고 있다. 여기서 실체는 없다. 변화무쌍한 이미지와 스타일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포스트모던 사상가들에게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세계관이 제안하는 대안이다. 그들에게 이것은 인간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적 자아를 추구하는 것에 있어 일탈은 포스트모던 자아에게는 구원과도 같은 것이다. 푸코는 “왜 당신은 자꾸 새로운 것을 말하는가? 왜 또다시 변화하려고 하는가? 당신이 말한 바를 확신하고 있지 못한 것이 아닌가? 이전의 관점을 반복하거나 반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라. 나에게 거기에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고 요구하지도 말라. 이것이 나의 도덕이다. 이것이 내 신분증명서의 원칙이다. 쓴다는 것이 필요할 때,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푸코, 2008 : 41).

이처럼 푸코는 자유를 갈망했다. 그가 억압에 대해 집요할 정도로 전력을 다해 세밀하게 다룬 것은 그가 얼마나 자유에 대한 관심이 컸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설이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인간의 자유를 믿습니다. 상황이 같을지라도 인간이 대처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다릅니다”라고 말했다(이영남, 2008 : 251).

하지만 푸코의 자유를 갈망하는 자아는 인간의 생활에 보편적 필연이 있다는 생각과 대립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개념이다. 더 나아가 구성적 자아는 다중 인격 장애가 겪는 비슷한 고통을 가지고 있다. 다중 인격은 메타내러티브의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포스트모던 자아의 방어 기제 같은 역할을 한다. 이에 대해 왈쉬와 미들튼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딱

5:9)라는 성경구절을 인용하면서 수많은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귀신들린 자의 상황이 바로 포스트모던 자아의 영혼의 상태와 같다고 평가한다. 자아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그리고 책임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는 선택과 행동을 한다. 그런데 대형 쇼핑몰에 진열된 수많은 물건들처럼 선택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어떤 것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할지 선택하라고 재촉 받는다. 그래서 그 자아의 마음은 점점 피곤과 아노미와 불안감으로 가득 차게 된다(Walsh & Middleton, 2007 : 110-113). 결국 구성적 자아라는 포스트모던 자아는 점점 무질서, 무의미, 그리고 광기로 가득한 세계 속으로 빠져든다. 데이비드 하비(David Harvey)는 이러한 포스트모던 자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혼돈을 초월하려 하거나, 대항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혼돈 속에 있을 수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요소들을 규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더니즘은 분열적이고 무질서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헤엄치고 그 속에 빠져 뒹굴기까지 한다. 이것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Harvey, 1989 : 44).

이러한 다중 인격적 자아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위해 헌신하거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변화무쌍한 자신의 스타일들로만은 변치 않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친밀해 지는 관계를 가질 수 없다(Walsh & Middleton, 2007 : 114-115). 왜냐하면 그 관계는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신뢰란 변하지 않는 일관성을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을 관계적 그리고 책임적 존재로 설명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죄인인 인간에게는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한다.

결국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성적 자아의 한계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간과한 것에서 비롯된다.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곧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며 그 우상은 그 숭배자들을 속박하게 된다는 것을 구성적 자아의 상황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Bob, 1987 : 25-28).

따라서 우리가 관계적 그리고 책임적 존재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결국 다른 차원의 신뢰의 기반이 필요한데 기독교적 인간관은 그 기반을 모더니즘이 추방했고, 포스트모더니즘이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에게서 찾는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며, 죄인으로서의 인간의 한계 역시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셨으며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로 인해 억압되어진 세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 본래의 모습, 즉 관계적이며 책임적 존재로서 회복되어 감으로써 자아의 분열로 인한 불안이 아닌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 V. 결론

지금까지 인간관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입장과 기독교세계관적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포스트모던 인간은 본래 욕망적 자아인데, 메타내러티브의 폭력 때문에 그 욕망을 분출하지 못하는 억압된 자아이며, 그래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모습(실체가 아닌 이미지)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구성적 자아이다. 이에 반해 기독교적 인간관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며, 죄로 인해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보았다. 그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상과의 의존성을 가진 관계적 존재이며, 그 관계 속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할 책임적 존재이다. 그 인간은 또한 관계를 맺고 책임을 다하는 존재이거나 또는 그 관계를 파괴하고 책임을 수행하지 않는 존재라는 두 가지 가능성이 지니고 있는 존재이다.

본 연구를 통해 모더니즘의 한계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으려고 시도했던 포스트모더니즘 역시 인간의 정체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반이 되는 인본주의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기도 하다. 따라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데 그 조건은 욕망적 자아가 그 집착에서 벗어나도록 그 욕망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억압된 자아의 문제가 남이 아닌 나의 문제, 즉 죄의 문제임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구성적 자아가 정신분열 증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은 비인간화 내지 인간 가치의 상실로 인해 공허한 마음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안전과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세계관이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신본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기독교적 인간관이야말로 포스트모던 인간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던 시대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첫째, 포스트모더니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심층적 문제인 포스트모던 자아의 희망과 두려움까지 이해하고 응답해야 한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심리적 상태와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사상 체계 사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리처드 마우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고 체계에 빠져드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오류 이면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Mouw, 1999 : 19-20)고 강조한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배후에 있는 희망과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연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섬기는 배려의 과정이 아닌, 사변적인 것이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세계관 연구는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논증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상대방에 대한 이해이며, 동시에 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이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게 한 그들의 희망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그들은 근대적 자아가 저질렀던 억압과 폭력에 대해 민감해하고 두려워한다. 그들의 탈중심적 자아라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이 다른 동식물에 비해 존중하다는 그 어떤 근거도 마련하지 못하며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희망도 경험할 수 없게 한다. 결국 그들의 마음에는 허무함과 비관주의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한 가운데 구성적 자아를 추구하지만 결국 다중인격적으로 인해 혼돈과 불안만을 경험할 뿐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희망)

은 (그들이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변치 않는 신뢰의 기반이다. 이것은 사랑과 은혜로 변함없이 다가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될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답게 살아야 한다. 영이신 하나님을 반영하는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진리의 토대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긍정적인 도전에 대해 인정하고 경청할 줄 알아야 한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다원주의는 반대하지만 그것이 다양성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성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획일적인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식과 행동의 출발점으로서의 전제인 세계관은 타협할 수 없지만 다른 사상과의 공통점을 인정하고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자신의 문제점은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다. 특히 억압되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관심을 추구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소외된 이웃과 세상에 대해 애통의 마음과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기독교는 메타내러티브의 폭력과도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적 인간관을 형성하도록 돕는 세계관 교육과 훈련이 시급하다. 특히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관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청소년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빚대어 설명하자면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입시 전쟁이라는 내러티브의 폭력 속에 억압된 자아이다. 그들은 인간의 본질보다 이미지를 추구하고(탈중심적 자아), 외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억압으로 여기고(억압된 자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개성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구성적 자아)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대중매체의 영향력 가운데 노출되어 구성적 자아처럼 그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낸시 피어시의 말을 빌리자면 “청소년에게 기독교적 지성(기독교적 인간관을 포함해서)을 개발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에 필요한 필



수 장비가 된 것이다(Pearcey, 2006 : 42-43).”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가톨릭대학교 인문학교육원 편저 (1997), 『인간학』서울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김영한 (1994), “포스트모더니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통합연구』, 7(2), 69-101.
- (1992), “포스트모더니즘과 한국신학”, 『목회와 신학』, 두란노서원, 1992년 8월호, 81-109.
- 신국원 (1999),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 IVP.
- 이영남 (2008), 『푸코에게 역사의 문법을 배우다』, 서울 : 푸른역사.
- 양승훈 (2004), 『기독교적 세계관』, 서울 : CUP.
- 전광식 (1994),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기독교세계관적 비판”, 『통합연구』, 7(2), 11-67.
-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 CUP.
- Berger, Peter (1967), *The Sacred Canopy :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Y. : Doubleday.
- Bob, Goudzwaard (1981), *Idols Of Our Time*, 김재영 역 (1987), 『현대 우상 이데올로기』, 서울 : IVP.
- Clements, Roy (1994), *Masterplan*, 황영철 역 (1997),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서울 : IVP.
- Derrida, Jacques (1997A), *Deconstruction in a Nutshell*, Ed. John D. Gaputo. New York, Fordham University Press.
- Foucault, Michel (1969), *L'Archéologie du Savor*, 이정우 역 (2000), 『지식의 고고학』, 서울 : 민음사.
- Foucault, Michel (1975), *Surveiller et punir : Naissance de la prison*, 오생근 역 (2003), 『감시와 처벌』, 서울 : 나남.
- Foucault, Michel (1976), *Histoire de la sexualité Tome 1 La volonté de savoir*, 이규현 역 (2004), 『성의 역사 1 앎의 의지』, 파주 : 나남.
- Foucault, Michel (1994), *The Order of Things : An Archeology of Human Sciences*, New York : Vintage.
- Gergen, Kenneth J. (1991), *The Saturated Self : Dilemmas of Identity in Contemporary Life*, New York : Basic Books.
- Harvey, David (1989), *The Condition of Postmodernity*, Cambridge, MA : Basil Blackwell.

- Holmes, Arthur F. (1983), *Contours Of A World View*, 이승구 역 (1991), 『기독교 세계관』, 서울 : 엠마오.
- Kearney, Richard (1986), *Modern Movements in European Philosophy*, 임헌규, 박영아, 임찬순 외 역 (2006), 『현대유럽철학의 흐름』, 파주 : 한울총서.
- Macaulay, Ranald & Barrs, Jerram (1978), *Being Human : The Nature of Spiritual Experience*, 홍치모 역 (1992), 『인간, 하나님의 형상』, 서울 : IVP.
- McDowell, Josh & Hostetler, Bob (1998), *The New Tolerance*, Wheaton : Tyndale House Publishers.
- Milne, Bruce (1998), *Know the Truth*, Downers Grove : IVP.
- Mouw, Richard J. (1992), *Uncommon Decency*, 홍병룡 역 (2004), 『무례한 기독교』, 서울 : IVP.
- (1989), *Distorted Truth*, 오수미 역 (1999), 『왜곡된 진리』, 서울 : CUP.
- Pearcey, Nancy Randolph (2004), *Total Truth*, 홍병룡 역 (2006), 『완전한 진리』, 서울 : 복있는 사람.
- Rorty, Richard (1991), *Essays on Heidegger and Others*,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ultze, Quentin J. (1991), *Dancing in the Dark : Youth, Popular Culture and the Electronic Media*, Grand Rapids, Mich. : Eerdmans.
- Smith, James K. A. (2006), *Who's Afraid of Postmodernism?*, 박삼종, 배성민 역 (2009), 『누가 포스트모더니즘을 두려워하는가?』, 파주 : 살림.
- Sproul, R.C. (1983), *The Hunger For Significance*, 이숙희 역 (1992), 『사람이 무엇이란대』, 서울 : 조이선교회출판부.
- Veith Jr., Gene Edward (1994), *Postmodern Times*, 오수미 역 (1999), 『현대사상과 문화의 이해』, 서울 : 예영.
- Walsh, Brian J. & Middleton, J. Richard (1984), *The Transforming Vision*, 황영철 역 (1987), 『그리스도의 비전』, 서울 : IVP.
- (1995), *Truth Is Stranger Than It Used To Be : Biblical Faith In A Postmodern Age*, 김기현 & 신광은 역 (2007), 『포스트모던 시대의 기독교세계관』, 서울 : 살림.

## Abstract

### A Study of Postmodern pers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Kyeong-Sang Yue (Baekse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postmodern pers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For this purpose, postmodern person and Christian person are explained by answering, comparing and analyzing three questions of worldview, “what is human?”, “what is the problem of human suffering?”, “what is the solution of human problem?”

As a result, it is confirmed that two perspectives are totally different and Christian person can be the alternative perspectiv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postmodern person. In other words, Christian person which is based on ‘the image of God’, suggests the solution of ‘dehumanization’ or ‘meaninglessness of humanity’ remained in a postmodern age.

Key Words : postmodern person, Christian person, humanism, liage of God, Worldview, Creation · Fall · Redemption